

“광주시·전남도 합동 일자리 박람회 열린다”

광주·전남·한전 등 공동 개최...29~30일 김대중컨벤션센터
에너지밸리·코트라 외투기업 등 60개사 초청...250여 명 채용
기업 구인난 해소·구직자 일자리 제공, 지자체 일자리정책 홍보

광주시(시장 강기정)는 전라남도,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전남지방병무청, 한국전력공사와 공동으로 29일부터 30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 1층 전시장에서 '2023년 광주·전남 합동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광주·전남 합동 일자리박람회는 광주·전남 우수기업의 구인난 해소와 구직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광주·전남지역 에너지밸리 기업, 코트라(KOTRA) 외투기업, 우수기업 등 60개사를 초청해 총 250여 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박람회는 기업별 채용상담, 현장

면접은 물론 기관·고용정책 홍보관 운영, 맞춤형 취업 컨설팅 버스 운영, 외국인투자기업 채용설명회가 열린다.

광주시 등은 행사가 끝난 뒤에도 지원자와 기업 간 연계, 2차 면접 진행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구인기업과 구직자를 관리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민선8기 1주년을 맞아 박람회를 찾은 기업, 기관, 시민을 대상으로 일자리정책 홍보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광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정책 방향과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등을 소개한다.

이를 통해 정책 수혜자인 기업과 시민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를 실시,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또 '광주일자리 플랫폼'을 시민들에게 처음으로 선보인다.

광주시는 일자리매칭 강화를 위해 지난 4월부터 광주일자리 플랫폼

폼을 새로 단장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는 새 단장을 통해 보완된 산업별 구인기업의 채용정보, 구직자 인재정보 등을 만나볼 수 있다.

최대범 일자리정책과장은 “광주·전남 합동 일자리 박람회가 지역 우수기업과 지역인재가 활발히 소통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기업과 구직자 간 맞춤형 일자리 연계를 위해 취업지원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문수기자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 베트남 하노이 국립대 총장과 산학협력 방안 논의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이 23일(현지시간) 레 꾸언 하노이 국립대 총장과 만나 미래 혁신 인재 육성의 필요성과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현대차그룹 제공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이 23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국립대학교(Vietnam National University, Hanoi) 호아락(Hoa Lac) 캠퍼스에서 레 꾸언(Le Quan) 하노이 국립대 총장을 만나 미래 혁신 인재 육성의 필요성과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베트남 사업 확대에 우수한 인재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현지 미래 인재를 육성하고, 전문 인력 확보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차원이다.

하노이 국립대는 세계 대학 평가 기관들에서 베트남 최고 대학으로 꼽히는 명문 대학으로, 현대차그룹을 비롯 한국 기업 및 대학들과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다.

현지 베트남 국회의원인 레 꾸언(Le Quan) 총장은 하노이 국립대 부총장, 노동보훈사회부 차관, 까마우성 인민위원장을 거쳐 2021년 하노이 국립대의 총장으로 임명됐다.

정의선 회장은 이 자리에서 현대차그룹이 자동차 사업을 통해 베트남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설명하고, 베트남에서 펼치고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또한 정의선 회장과 레 꾸언 총장은 베트남 자동차산업은 물론 경제산업 발전에 체계적인 전문 기술 인재 육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서로 인식을 같이 하고, 우수한 인재를

교육시키기 위한 산학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눴다.

정의선 회장은 “하노이 국립대와 의 자동차산업 산학 협력을 통해 우수한 미래 혁신 인재 육성을 희망한다”며 “현대차그룹 뿐만 아니라 많은 협력사들이 베트남의 우수 인재를 채용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베트남 자동차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의선 회장과 레 꾸언 총장은 ‘현대차그룹-하노이 국립대 협력센터’ 신설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의선 회장은 면담 말미에 현대차그룹의 주선으로 해외 대학의 유명 석학을 초빙해 하노이 국립대에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하면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는 감쪽 제안을 했다.

레 꾸언 총장은 이 제안에 대해 “하노이 국립대는 많은 국제 학생을 유치하고, 또 우리 학생을 해외로 내보내는 미션이 있다”며, “현대차그룹의 도움으로 해외 석학이 우리 학교에서 강의할 수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베트남 자동

차시장에서 선두권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다.

현대차는 올해 5월까지 2만2천903대를 판매하며 도요타를 제치고 판매 1위에 올랐으며, 기아는 1만3천951대로 4위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현대차 8만1천582대, 기아 6만729대로 각각 2위, 3위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현대차 베트남 생산 합작법인 HTMV(Hyundai Thanh Cong Manufacturing Vietnam) 2공장을 준공하며 현지 생산능력이 10만대로 증가한 만큼 판매를 더욱 확대해 베트남 시장에서 주도권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현대차그룹은 베트남에서 인재육성과 자립 지원 등 교육 부문과 관련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도 펼치고 있다.

이는 ‘실질적으로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되는 CSR 활동이 중요하다’는 정의선 회장의 철학에 따른 것이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2020년부터 매년 베트남 대학생 지원과 청소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공헌 프로그램 ‘현대 점프스쿨 베트남’을 시행하고 있다.

‘현대 점프스쿨 베트남’은 하노이 지역 대학생들과 현지 소외 계층 청소년들을 연결해 교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대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은 물론 진로 관련 멘토링을, 청소년들에게는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해 현지에서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인정받고 있다.

아울러 하노이 공업전문대학 내 직업기술교육센터인 현대드림센터를 지난 2016년 건립하고 자동차 정비 전문가, 건설 분야 전문가 육성에도 기여했다. 건립 후 3년 동안 현대차그룹이 직접 운영하며 현대차와 현대건설이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전수했으며, 협약에 따라 현지 대학에 시설과 운영을 인계한 후에도 교보재를 지급하는 등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올해도 현대차는 지난 주 19일부터 24일까지 베트남 하노이 공업전문대학 자동차 정비과 강사진 22명을 대상으로 교육 봉사를 실시했다.

최신 정비 교육을 위해 현지 판매 중인 더 뉴 썬타페, 디올 뉴 투싼을 교보재로 활용해 진단, 엔진, 전장에 대한 이론 강의 및 현장실습을 진행했으며, 교육을 이수한 수강생들에게는 수료증을 증정하고 학교 관계자 및 학생들과 문화 교류 행사도 열었다.

/이문수기자

남성갱년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맨 파워

나이 들어도 자신 있는 남자 Project

삶의 활력을 찾자!
남성의 자신 있는 삶!

기력이 없는 갱년기 남성 건강에 활력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MR-10과 소팔메토, 아연의 복합기능성 제품으로
남성갱년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솔루션~!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